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5(土)	16(日)
비/눈 후경 3/8℃	구름 조금 0/8℃

News

- 공무원 정년 연장 합의 ②
- 독서마라톤 도전 가족 ③
- 메이저리그 '악물폭탄' ⑧

Jeollado

- 그 사람-이매방 선생 ⑦



Entertainment

- 방송3사 연기대상 누구? ⑧
- TV탤런트·가수 영예대뷔 ⑨

Wellbeing

- 식품 탐구-콩나물 ⑬



우림재단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
 http://www.jnsci.ac.kr



불법현수막 원유제거 활용 광주 광산구 자원봉사단이 태안 앞바다를 덮친 기름을 없애기 위해 깔아놓은 현수막이 모래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광산구 자원봉사단 80여명은 구청에서 수거한 불법현수막 700여장을 신두리 해수욕장에 깔고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합뉴스

안면도 연안에 '오일볼'

2차 피해 현실로...보령 해상까지 번져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가 8일째를 맞아 천혜의 어장과 관광자원을 간직한 안면도 연안 및 보령 해상 등으로 번지며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방재당국의 총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태안 안면도내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꽃지해수욕장에 이르는 해면 10여km에 걸쳐 기름 찌꺼기인 '오일볼(Oil ball)'이 대량으로 밀려들면서 2차 오염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해경 방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항공순찰 결과, 안면도에서 서쪽으로 27km 떨어진 토도 인근 해상에 퍼져있던 기름덩어리들이 해상 방제작업으로 파쇄되며 오일볼 형태로 안면도 해안으로 밀려들 것으로 관찰됐다.

안면도에서 서쪽으로 10여km 떨어진 외파수도 부근까지 번졌던 기름띠 일부가 이날 오전 보령시 오전면 호도와 삼시도 해상까지 밀려들며 반경 1km 가량의 기름띠와 오일볼이 형성됐다.

방재당국은 경비정 55척 등 254척의 함선과 항공기 16대, 방제인력 2만5천여명(민·관·군)을 동원하는 등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총 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대전해수욕장 등 보령 앞바다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는 호도, 삼시도 앞 오일볼 덩어리와 태안군 나지도 해상의 기름띠는 대형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항공방제 등 기름띠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일볼(Oil ball)' = 유출된 원유의 휘발성분이 상당부분 대기로 날아가면서 비중이 무거워진 기름이 '공' 형태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을 말한다. 물고기나 해조류를 죽이고 플랑크톤을 오염시켜 환경전문가들은 오일볼 발생을 가장 크게 우려해왔다. /연합뉴스

鄭 막판 승부수 통할까?

“대선후보 등 모든 것 걸고 단일화 꼭 성사”
 ‘극적 대반전’·‘역전극 불가’ 전망 엇갈려

대선 D-4

대선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검찰수사 규탄대회'에 참석, "후보 단일화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으며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이날 발언은 후보단일화와 관련, 기득권 포기를 요구해온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요구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특히, 후보단일화를 위해 대선 후보직 등 모든 것을 걸겠다는 점은 정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로 읽힌다.

문국현 후보가 이끌고 있는 창조한국당 안에서 단일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창조한국당 전남선대위 구희승, 오광종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하고 보수적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서는 정 후보와 문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며 "만약 16일까지 단일화 방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차선의 방안으로 정동영, 문국현 두 후보 중 한 명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안에서 공개적인 단일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렇다면 정 후보가 던진 승부수는 통할 수 있을까.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도 3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역전극 연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미 부재자투표도 끝났고, 확연히 다른 정국 셈법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단일화 효과는 단순한 지지율 합산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대선 이후의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극적인 성사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유력하다. 후보단일화만 이뤄지면 '1+1=3'의 단순 지지율 합산이 아니라 부동층을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며 '1+1+1=5' 이상의 결과가 도출될 것

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선 패배 책임론도 막판 단일화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패배가 현실화된다면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후보는 분열에 의한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후보단일화 선언이란 극적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범여권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주지역 재야·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는 14일에도 이어졌다.

광주·전남민중평화국민회의와 70·80 민주주의회 등 광주·전남지역 재야·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광주YMCA에서 '대선 제3차 집담회'를 갖고 "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 노력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2007 대선승리국민운동"도 이날 광주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와 평화통일을 희망하는 모든 세력이 대연합해 수구방진·부패를 청산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후보가 막판 단일화를 이룰지, 아니면 독자 완주를 택할 것인지, 대선은 이제 나을 앞으로 다가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로스쿨 총정원 지방에 48% 배정

전남대 '환영' 조선대 '반발'

전남대 "지역 발전책에 적절"
 조선대 "지역비율 더 높여야"

법학교육위원회는 1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 배분 비율을 52(수도권) 대 48(지방)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환영' 의사를 표했고, 조선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날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중 서울과 경기도·인천·강원 등 수도권 권역에 52%(1천40명)를, 광주와 부산·대전·대구 등 지방 4개 권역에 48%(960명)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 대학 수나 합격자 수 등 서울·지방 차이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반해 이번 발표는 지방 권역을 더 배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권역 배분 비율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서울 권역에 13~14개 대학, 지방 권역에 11~12개 대학 등 모두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립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전남대와 조선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 법대 송오식 부학장은 "수도권 대학들이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해 반해 재정·사시합격자 수 등이 열악한 지방대학은 불리해 비율이 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거의 절반씩 나뉘진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지역 발전 정책을 본다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조선대 법대 김춘환 학장은 "교육부가 예견된 지역 발전 계획에 따라 6(지방) 대 4(수도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반대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주장이 '지역 발전'인 만큼 지역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지방대학 대표들이 모두 만나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학들도 "신청 대학 수가 많은 데 비해 수도권 대학 배정 비율이 너무 적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

LANEIGE